

가위질에 되찾은 활기...“10년은 젊어졌네라”

(사)대한미용사회광주북구지회

북구청 연계 미용실 부족한 곳 대상 2021년부터 ‘美 찾아가는 나눔봉사’ 작년 22곳 방문...“올해도 재능기부”

“머리하고 나니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네라.” 지난 17일 오전 9시에 광주 북구 석곡동 용호 경로당은 머리 손질을 위해 모인 어르신들로 북적였다. (사)대한미용사회 광주시 북구지회(이하 북구지회)는 북구청과 연계해 인근에 미용실이 없어 이·미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미(美) 찾아가는 나눔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은 올해 처음 진행된 이·미용 봉사로, 가위와 빗을 든 미용사들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어르신들의 머리를 다듬었다. 머리카락이 바닥에 쌓이는 사이 경로당 안에서는 “시집가도 되겠어”, “좋은 하루 되세요”



지난 17일 오전 대한미용사회 광주시 북구지회 소속 미용사들이 북구 석곡동 용호경로당에서 ‘미(美) 찾아가는 나눔봉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다. /윤찬웅 기자

같은 웃음 섞인 말들이 오갔다. 이번 봉사에는 30~40년 경력의 미용사 3명이 참여해 커트는 물론, 어르신들이 직접 챙겨온 염색약을 이용한 염색, 가발 손질 등도 이뤄졌다. 머리 손질을 끝낸 어르신들은 거울을 보며 연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염색약을 챙겨온 송기례(77·여)씨는 “머리를 하고 나니 몇년은 젊어진 느낌이 들어 너무 좋

다”며 “이렇게 직접 찾아와 해주니 편하고 고맙다”고 웃어 보였다. 봉사는 용호경로당을 비롯해 어운·장동경로당 등 3곳에서 동시에 펼쳐졌으며, 하루 동안 각 경로당에는 30여명의 만 65세 이상 회원들이 다녀갔다. 북구청과 북구지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든 2021년부터 석곡동과 건국동 등 미용실이

부족한 농촌지역 경로당을 중심으로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22개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머리를 손질했다. 현재 김현자 북구지회장을 비롯한 40여명의 미용사들은 순번을 정해 재능기부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매주 화요일 휴무일을 활용해 지역 곳곳에서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김중환(75) 석곡동 용호경로당 노인회장은 “농촌 지역은 미용실이 없어 어르신들이 시내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찾아가는 나눔봉사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복지 차원에서 이 같은 활동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김은옥(59·여) 북구지회 사무국장은 “머리는 옷처럼 사서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봉사활동 중 어르신들이 밝게 웃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미용봉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찬웅 기자



광산구,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3호점’ 개소

광주 광산구가 첨단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 3호점을 개소하며 스마트 예방적 건강 돌봄 생태계를 완성했다. 18일 광산구에 따르면 전남 행복나루노인복지관에서 수완(1호점)과 우산(2호점)에 이은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 3호점(송정 권역)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3호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스마트블리지 보급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사업비 12억5천만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이를 통해 광산구는 수완·우산·송정 3개 권역을 하나의 스마트 체계로 연결해 시민 누구나 온라인과 모바일 앱으로 건강 데이터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선도적 플랫폼을 전국 최초로 확충했다. 건강관리소에서는 체성분과 근력 등 총 16종의 정밀 측정이 이뤄지며, AI가 이를 분석해 개인별 맞춤 리포트를 제공한다. 결과에 따라 운동, 영양, 산림치유 등 비의료적 사회적 처방이 내려지며, 노인 일자리로 양성된 ‘건강 활동가’가 실천을 밀착 지원한다. /이옥근 기자



광주시육상연맹, 초등 육상 꿈나무 물품 지원

광주시육상연맹이 지역 육상 꿈나무들의 경기력 향상과 학교 체육 발전을 위해 든든한 후원자로 나섰다. 광주시육상연맹은 18일 오전 11시 빛고을초등학교에서 ‘초등 대표선수단 물품 지원 및 격려 행사’를 가졌다. 이번 물품 지원은 광주 육상의 미래를 책임질 초등학생 유망주들이 훈련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맹은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초등 육상 선수들과 이들을 헌신적으로 이끄는 지도자 등 27명에게 훈련용 물품(운동화)을 전달했다.

‘광주시육상연맹이 초등선수단의 거침없는 질주를 응원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연맹은 앞으로 어린 선수들이 부상 없이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김민주 광주시육상연맹 회장은 “어린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기량을 갈고닦으며 국가대표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물품 지원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광주 육상의 든든한 뿌리가 되는 초등학교 체육 발전과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해 연맹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전남도, 구례 오일장서 ‘암 예방 합동 캠페인’

전남도는 18일 구례읍 오일장에서 지역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암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전남도, 구례군, 광주전남지역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지원센터, 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암 예방 수칙 안내, 금연 상담, 폐활량 검사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보온·보냉백 등 홍보물과 리플릿을 배부해 암 검진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정기검진을

받을 것을 권했다. 전남도는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체계적 지원을 위해 올해 10억원을 투입, 암검진사업(75억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24억원), 재가암환자 관리(2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하기 위해선 정기적 검진이 필요하다”며 “건강지표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동신대 선도연구센터, ‘장-뇌 축기전’ 2단계 연구 돌입

동신대 선도연구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계평가에서 세부평가 ‘우수’ 결과를 받으며 2단계 연구에 돌입했다. 18일 동신대학교에 따르면 선도연구센터는 최근 키포지 미팅을 개최하고, ‘비위(脾胃) 조절 기반 장-뇌(Gut-Brain) 시스템 제어 한의과학 연구센터’의 2단계 연구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동신대 선도연구센터는 장-뇌 축(Gut-Brain axis)을 기반으로 과민성 장증후군과 우울증의 연관 기전을 규명하고, 장내 미생물과 대사체를 활용한 새로운 질환 제어 전략을 개발하는 융합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단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와 심층 기전 연구를 통해 Gut-Brain 시스템 조절 기전을 정밀하게 규명

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현 선도연구센터장은 “2단계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과 대사체 기반의 Gut-Brain 시스템 조절 기전을 보다 정밀하게 규명하고, 한의처방의 ‘이병동치(異病同治)’ 치료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기초 연구부터 임상 적용까지 이어지는 융합 연구를 통해 한의과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광주북구가족센터, 청소년 교류·소통 프로그램 운영

광주북구가족센터는 18일 “다문화·비다문화 청소년 28명이 참여하는 교류·소통 프로그램을 지난 14일 개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타와 방송댄스로 구성됐으며,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총 7회에 걸쳐 진행된다. 센터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 표현 능력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또래 간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찬웅 기자

파란꿈지역아동센터-이팝너머 ‘ESG 환경실천’ 협약

광주 남구 파란꿈지역아동센터는 “최근 장애인복지시설인 이팝너머와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성인 발달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ESG 환경실천 프로젝트 ‘손잡고 만드는 초록 지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환경교육, 업사이클링 활동, 채식 DAY 요리교실, 환경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4~11월 진행되며, 지역사회 환경 보호 실천과 참여자 간 사회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찬우 파란꿈지역아동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실천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광주 남부소방, ‘카프차’ 활용 화재진압 훈련

광주 남부소방서는 “최근 ‘카프차’를 활용한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대원들은 물에 소화약제와 공기를 섞어 거품을 만들어 불을 끄는 카프차의 거품 분사 방식과 화재 유형별 대응 방법을 집중적으로 익혔다. 송성훈 남부소방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

광주 일곡지구대·자율방범대 합동 순찰

광주 북부경찰서 일곡지구대는 18일 “일곡동 자율방범대의 함께 전야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찰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된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추진됐으며, 도서관 주변과 근린공원, 주차장, 주택 및 상가 골목길 등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순찰 과정에서는 가시적 순찰 활동과 함께 조명 시설 상태와 CCTV 사각지대, 우범 취약 구간 등에 대한 환경 점검도 병행됐다. 김희준 일곡지구대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맞춤형 순찰활동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찬웅 기자



광주대, 재난·안전박사 8명 배출

광주대학교 대학원 방재안전학과는 지난 17일 광주 서구 JS웨딩컨벤션에서 ‘석·박사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번 리셉션은 광주시로부터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매년 지원받는 5천만원의 사업비를 통해 배출된 박사 8명의 연구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박사학위 연구는 실제 재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주제들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고속국도 유지관리 종사자의 재해 경감 구조적 메커니즘 규명 ▲소규모 건설현장 IoT·센서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AI와 디지털 트윈을 결합한 다중운집 인파사고 관리 체계 ▲도시홍수 대응 통합 모델 및 안전취약계층 위험지수(V-CRI) 제안 등이 발표됐다. /박선욱 기자

결혼

▲양홍렬(광주매일신문 지역특집부 국장)·이상희씨 아들 다훈군, 김태균·최지연씨 딸 민경양=21일(토) 오후 6시 순천 더혜음 웨딩홀 르누아홀.